

“이제 여든넷... 아직 내 전성기는 오지 않았죠”

7 June, 2016 | 최보윤 기자

“이제 여든넷... 아직 내 전성기는 오지 않았죠”

‘단색화’ 붐의 주역 정상화 화백
美 뉴욕 갤러리 두 곳서 동시 전시

“60여년 작품 활동의 에너지는
교직생활 하며 얻어진 성실성
작품 안나오면 더 죽어라고 일해
값 많이 댄 작가? 노력의 대가죠”

“자기의 것을 밖으로 내보이고 싶은 건 작가의 마음이었지요. 그래야 반성이 돼서 새로운 것을 해보려는 의지도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객과 대화하면서 장문을 열어 밖을 내다보는 것처럼 내 한정된 눈의 깊이도 확장되는 것 같습니다.”

현대미술의 중심인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개인전을 연다는 건 화가에게 또 다른 의미의 ‘아메리칸 드림’이다. 그것도 잭슨 폴록, 게르하르트 리히터 같은 거장들을 소개해온 최고급 갤러리 ‘도미니크 레비’와 뉴욕에서도 실험적 작품을 선보이는 곳으로 유명한 갤러리 ‘그린 나프탈리’ 두 곳에서 동시에 연다는 건 현지에 서도 주목받을 만한 일이다.

주인공은 백전노장 정상화(84) 화백. 그는 최근 2~3년간 세계 미술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단색화(單色畵)’ 붐을 이끄는 주역 중 한 명이다. 단색 화가 중에서도 최근 시장에서 가장 그림 값이 많이 댄 작가로 꼽힌다. 지난 1일(현지 시각) 전시장에서 만난 정 화백은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 한다”며 조용히 말을 이었다. “같은 작업을 60년 넘게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술이라는 건 작가의 성실성과 노력, 오랜 지속성이 축적돼 제대로 발효가 됐을 때 나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신적인 발효제, 그게 없으면 일 못해요.”

정 화백은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는 대신 천에 고풍도를 바른 뒤 마르기를 기다렸다 때고, 그 위에 불감으로 때우고, 또 뜯어내고 칠하는 반복적인 작업을 통해 작품을 완성해 나간다. “난 꼭 차 있는 공간에서 비워가는 마음 자세를 유지할



Lan Chunghsuan 제공

정상화 화백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는 뉴욕 맨해튼 첼시의 ‘그린 나프탈리’ 갤러리에서 한 관객이 정 화백의 작품을 뚫어지게 보고 있다.

다. 감춰져 있던, 안 보이는 것을 화면에 담는 게 우리 일이지요.” 한 작품이 완성되기까지 길게는 1년 넘게 걸린다. 조수도 쓰지 않고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만 완성한다.

도미니크 레비 갤러리에선 19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단색화 작품 15점이 전시되고, 그린 나프탈리 갤러리에선 2000년대 이후 최근 작품 15점이 전시됐다. 그의 예술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작품이 두 곳에서 나뉘어 전시되는 셈이다.

도미니크 레비 갤러리의 도미니크 레비 대표는 “화가이지만 조각가 같은 느낌을 주는 작업 방식”이라며 “고요한 듯하면서도 무언가 자극을 일으키고, 차분한 듯하면서도 마음을 휘저어 놓는 균형 감각이 탁월하다”고 했다.

1932년 경북 영덕에서 태어나 서울대 미대를 졸업한 그는 서울예고 등에서 교편을 잡기도 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린 나프탈리’ 갤러리에서 미국 현지 미술 관객이 대화하는 정상화(가운데) 화백.

얻어진 성실성이 작품을 하는 데 에너지가 된다고 생각해요. 작품이 잘 안 나온다 싶으면 죽어라고 ‘일’ 더 많이 해야지요. 요즘 젊은 세대는 편한 걸 더 추구하려는 거 같아요. 자기 것을 잊어버리고 편한 걸 하게 되면 진짜 일의 성취감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60여년간 ‘일’을 하면서 새벽 5시엔 일어나 밥을 먹고, 경기도 여주시 산복면 작업실 근처 산을 돌고서 온 종일 작업에 들어간다.

“작가라는 게 어린애 같은 면도 있거든

· 단색화

구체적인 이미지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단일한 색조의 반복적인 작업으로 평면을 표현하는 추상 기법. 1970년대부터 국내 작가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시도됐다. 비슷한 시기 장식을 배제한 서구 미니멀리즘, 일본의 모노하(物派)와 비교되나 묵연 수행하듯 반복적으로 그리는 정신성에서 차이가 있다. 대표적인 생존 작가로는 박서보·정상화·하종현·이우환 등이 있고, 작고 작가로는 윤형근·정창섭·권형우 등이 있다.

요?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해 주고 관심 보여주면 아이처럼 기분이 좋아지지요. 여든넷이지만 말년은 아닙니다. 남들은 지금이 전성기라 해도 아직 제 전성기가 온 게 아니지요. 끝까지 일할 겁니다.”

뉴욕·최보윤 기자